

「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に参加して

著者	金 柄徹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14
ページ	190-193
発行年	2000-07-24
URL	http://doi.org/10.15021/00002231

「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に参加して

金柄徹（亜細亜大学）

まず、博物館にはまったく門外漢であるにも関わらず、今回のシンポジウムに参加させて頂いたことに関して、朝倉敏夫先生をはじめ国立民族学博物館の関係者の方々に御礼を申し上げたい。短期間ではあったが、お蔭様で様々なことを経験し、また多くのことを学ぶことができた。

2日間のシンポジウムを通して既に韓国と日本の専門家による様々な議論がなされたので、本報告書では博物館の専門家ではない者（強いていえば文化研究者）としての感想を簡単に述べたいと思う。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

今回の展示（2000年3月）は、1983年以降公開されてきた「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展示替えであったが、残念ながら以前の展示を見てないので両者の比較はできず、新しい展示に限っての感想だけを述べることにしたい。

今回の展示で一番ユニークな点は、朝倉先生の基調報告でも重要なプリンシプルの一つとして紹介された「現代文化の展示」である。一般の博物館が過去のもを展示することを念頭に置くと、現在のものを展示することは博物館としては一つの冒険的作業であったに違いない。しかし、民博が追求しているのが「遺物（宝物）の展示」ではなく「標本資料（情報）の展示」であることを考えれば、なるほどなずける点が多い。

朝鮮半島の現在を見せるため、展示には精神文化と物質文化とが一对をなすという工夫が施されていたように思われる。即ち、「伝統」は「意味ある過去」であり、それゆえに朝鮮半島の伝統文化の中には長い歴史を通じて様々な外来の文化が溶け込まれてきているというメッセージが具体的な「もの」を通して伝わってきた。

もう一つ目が引かれるのはパティオに設置された酒幕である。朝鮮半島の文化を手軽に体験できる場所としてのその活用が今後期待される。オンドルに座り、パジョンやマッコリが試食できれば、それこそ身近な異文化体験であろう。

さて、今回の展示に関する批判やその限界についても既に韓日の専門家によって具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문화의 표상」에 참가해서

金柄徹 (亞細亞大學)

먼저, 박물관에 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본인을, 이번의 심포지움에 참가시켜 주신 점에 관해 朝倉선생님을 시작으로 국립민족학박물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음양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2일간의 심포지움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한 논의가 거론되었고, 본보고서에서는 박물관의 전문가가 아닌 문화연구자로서의 감상을 간단히 적고자 한다.

新「한반도의 문화」의 전시

이번의 전시(2000년 3월)는 1983년 이후 공개되어 온 「한반도의 문화」 전시를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전의 전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전시에 한하여 감상만을 적어보고자 한다.

지난회의 전시에서 제일 독자적이었던 점은, 朝倉선생님의 기초보고에서도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써 소개되었던 「현대문화의 전시」였다. 일반적인 박물관이 과거의 물건을 전시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의 물건을 전시하는 것은 박물관으로서는 하나의 창조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유물(보물)의 전시」가 아닌 「표본 자료(정보)의 전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수긍할 점이 많다.

한반도의 현재를 보여주기 위하여, 전시에서는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라는 것이 한 쌍을 이룬다는 고안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즉, 「전통」은 「의미 있는 과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조선반도의 전통문화 가운데에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화가 수용되어져 왔다고 하는 메시지가 구체적인 「물건」을 통해서 전달되어 왔다.

마음이 끌리는 또 하나는 파티오에 설치된 주막이었다. 조선반도의 문화

体的な指摘が行われたので、以下では3点ぐらいで筆者の考えをまとめることで本報告書を終わりにしたい。

まず、情報伝達の限界である。限られた狭い空間に数多くの工夫や無数の情報がぎっしりと詰め込んであるので、展示者の説明を聞いたり、「配置の仕掛け」やその意味をゆったりと吟味できる訪問客には大変興味深い展示であろうが、一般の客にはその面白さが見えないおそれがあるし、また韓国（朝鮮）文化の多様性は見えても、普遍的な様子が見えにくい可能性もあるのではなかろうか。

次に、今後の展示への要望事項である。現在、日本には約60万の在日コリアンが存在するが、これからの展示にはその情報をもぜひ紹介してほしい。なぜ彼ら（彼女ら）が日本にいるのか、なぜ在日コリアン・在日韓国人・在日朝鮮人などの名称が混在して使われているのか（それゆえ、韓国語にしても韓国語・朝鮮語・コリア語などが用いられており、場合によってはハングル語という変な表現までもが使用されている）などを、朝鮮半島の分断の現実と共に（展示の主なターゲットとされる）日本の小学生に伝えてほしい。

最後に、なによりも痛切に感じたことは展示という作業の難しさである。本当にお疲れ様でした。

를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활용이 이후 기대된다. 온돌에 앉아서, 파전이나 막걸리를 시음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異文化 체험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전시에 관한 비판이나 그 한계에 대해서도 이미 한일의 전문가에 의해 구체적인 지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필자의 생각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본 보고서를 끝마치고자 한다.

먼저, 정보전달의 한계이다. 제한된 협소한 공간에서 수많은 고안이나 무수한 정보가 꼭 들어차 있기 때문에 전시자의 설명을 듣거나 「배치의 고안」이나 그 의미를 느긋하게 음미할 수 있는 방문객에게는 대단히 흥미 깊은 전시이겠지만, 일반의 방문객에게는 그 흥미로움이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고, 또 한국문화의 다양성은 보인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후의 전시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사항이다. 현재, 일본에는 약 60만의 재일 한국인이 존재하는데, 이후의 전시에는 그 정보 또한 꼭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들이 일본에 있는 것일까, 왜 재일 코리안·재일 한국인·재일 조선인들의 명칭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는가(그 때문에 한국어에서도 한국어·조선어·코리아어 등이 사용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글어라는 이상한 표현마저 사용되고 있다) 등을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함께 (전시의 주요한 목표가 되는) 일본의 초등학생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전시라고 하는 작업의 어려움이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